

정책명	전 생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생애 첫 4,000일
제출분야	사회경제적 형평성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생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첫 4,000일(First 4,000 Days for Life-long Equity: F4DLE)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 전략으로서, 아동의 건강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영양교육, 특별 보충식품, 식품 안전/위생 관리 및 고용 지원을 통합한 ‘umbrella initiative’임. • 태아기부터 학령기까지를 망라하는 이 접근법은 저소득층 아동의 식생활이 영양적으로 불량하며 빈혈 유병율도 높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시작됨. 경제 상태와 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서울시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형평성 실현에 필수적인 평생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 건강에 초점을 맞추게 함. • F4DLE는 지역사회 기관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부서들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며 또한 저소득층 임신부와 출산부, 영아, 학령 전 아동, 학령기 아동 및 이주 여성에 대해 3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함: 영양플러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프로그램. • 영양플러스에서는 수혜자의 니즈에 맞춘 영양교육과 특별보충식품을 무료로 지원함.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양학적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과 여성들이 영양지식을 식생활에 적용해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특별보충식품을 활용하도록 강조하며, 이는 식습관 변화와 빈혈 유병율 감소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영양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더해, 이주민 수혜자를 위해 이주 여성을 통역자와 요리활동가로 활용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에게 고용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령 전 아동을 돌보는 영양사가 없는 중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영양교육과 식품 안전/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영양사 면허 소지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 아동보육시설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중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영양사의 관리 하에 제공되는 식사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로 인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게 됨.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중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학령 전 아동에 초점을 맞춘 영양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아동의 17%가 거주하는 서울시에서는 다른 어느 지방 정부보다도 큰 비중의 예산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투입하였음. 여러 대학교와의 협력에 의해, 중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염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약 0.1% 감소) 식습관이 개선되었으며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과 조리교육을 포함한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농수산 식품공사와 6개의 대형 청과상이 과일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의 단 4%만을 부담.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세심한 파트너십은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 증가라는 결과를 이끌어냄. • 결국 F4DLE는 생애의 진정한 첫 단계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촉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p>접근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아동 건강문제의 성격과 범위 파악 • 영양교육과 식품으로 특화된 해결 방법 강구 • 태내 시기부터 학령기까지 순차적인 확대 계획 수립 • 가용한(또는 동원 가능한) 인적/물질적/금전적 자원 파악 • 정부, 지역사회, 학계 및 민간 영역의 파트너 파악 • 저소득층 및/또는 이주민 참여자 확보 •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특화된 내용의 프로그램 시행 • 이주민 요리활동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p>심사기준 1 (혁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생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첫 4,000일(First 4,000 Days for Life-long Equity: F4DLE) 이니셔티브는 아동의 건강을 확보하여 평생 건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형평성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태내부터 학령기까지'라는 혁신적/창의적인 접근법을 사용함. •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구상과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 시행 및 순차적인 확대를 통해,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야기된 건강 이슈를 가장 근본적 사항인 식생활과 영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완화시키고자 하였음. • 이주민 여성에게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영양사면허 소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형평성 실현에도 기여함. • 영양교육과 특별보충식품, 식품 안전/위생 관리 및 고용 등을 망라하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확보되는 아동의 적정 영양 상태는 장기적인 건강 효과와 지속 가능한 도시 먹거리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며 이는 또한 식품안정성(food security)과 영양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정책지원의 시행을 선도할 것임. (F4DLE처럼 참여자의 특성에 맞추어 특화시킨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통합된 형태로 운영한 다른 예를 국내나 국외에서도 찾기 어려움.) • 이 이니셔티브는 노인 같은 다른 취약 인구집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도 확대 가능함. 올해 서울시에서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충식품(영양 꾸러미)과 임상영양사에 의한 임상 영양관리 및 조리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개의 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2020년에는 이 이니셔티브가 "전 생애 형평성을 위한 처음과 마지막 4,000일(First & Last 4,000 Days for Life-long Equity)"로 진화될 것이며,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1, 2, 3 및 12번의 달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혁신성을 가짐.
<p>심사기준 2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4DLE의 목적은 통합된 3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아동의 건강 향상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임. • 영양플러스에서는 2016년에 영아, 학령 전 아동, 임신/출산부 등 15,700명을 지원했으며, 이들의 빈혈 유병율의 25% 감소와 식생활의 영양 적정도 12% 상승이라는 결과를 끌어냄. 2008년 처음 시작된 이래 총 130,0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10명의 베트남 여성 요리활동가를 배출하여 다문화 가정의 언어와 문화 장벽을 깨는 데도 기여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2017년에 총 4,160개 중소규모 어린이집 중 2,028

	<p>개를 지원하여 15개 구에 거주하는 학령 전 아동 85,265 명이 혜택을 받음. 학계와 협조해 운영한 특화된 영양교육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염도가 다른 어린이집의 식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추정된 비용 편익은 11-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2017년에 총 437개 아동센터 중 217개 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6,438명의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신선한 과일(200g/아동, 1주 2회)을 공급하고 식생활교육을 실시함. 2013년에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31,385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커버리지는 53%임.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66% 상승했으며 배변활동과 영양지식의 개선 효과도 나타남.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평균적인 과일 섭취량이 2015년에 급증했다는 결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파급효과임. 수혜 아동의 부모와 지역아동센터의 높은 만족도에 고무되어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FAC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함. 아동 건강에 대한 F4DLE의 뚜렷한 파급효과는 사회적 효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이기도 함.
<p>심사기준 3 포괄성</p>	<p><thematic in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4DLE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내의 여러 부서 간 협력을 통해 MUFPP Framework of Action의 4개 주제를 포괄함: 식품정책과, 건강증진과, 도시농업과 등의 부서 간 업무 조율과 협력을 통해 governance, sustainable diets and nutrition, social and economic equity, and food supply & distribution 등 4개 주제를 포괄. 이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지역사회 전문가와 자원, 자원 등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강조함. <p><territorial in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정부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의 관할 영역을 포괄 <p><social in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4DLE는 교육을 위해 학계 및 전문가 협회와 협력하고, 민간영역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식품을 지원받으며, 재정 지원과 식품 분배 등을 위한 시장(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므로 이들을 모두 포괄함. 또한, F4DLE는 체험교육을 위해 식품산업 협회/진흥회 등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음.
<p>심사기준 4 (역경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생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첫 4,000일(First 4,000 Days for Life-long Equity: F4DLE)이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해 구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난제임. 영양플러스의 경우에는 긴 waiting list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음. 이 프로그램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식품 비용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대

비 125-185%에 상당하는 월소득이 있는 가구의 참여자에게는 식품비의 10%를 자가 부담 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특별보충식품 공급을 위해 유통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통합된 1건의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20-30% 정도의 대상자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음.
- 또 다른 난제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재였음.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영양교육 자료를 번역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또래 요리활동가를 양성하였음. 그 결과, 이주 여성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프로그램의 난제 역시 식품비용이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과일이 상대적으로 비싼 식품이기 때문임. 서울시는 이해당사자 미팅을 통해 당면 문제와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자원 조달과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찾고자 하였음. 시 정부와 시장 공사 및 몇몇 식품유통업체 간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3년간의 재원이 사회공헌 사업 형식으로 확보되었음.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반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